

정보 TIP

광주우체국 고객만족도 1위

광주우체국(국장 김한준·사진)이 지난해 경영 및 고객만족도 평가에서 광주·전남지역 우체국 가운데 1위를 차지했다.



광주우체국은 23일 우편·금융 수익성과 우편 전략 상품(택배)·우편 소품 품질, 고객만족도 등을 평가한 '2007년도 전남체신총합평가'에서 100점 만점에 99.829점을 받아 광주·전남지역 26개 우체국 가운데 1위를 차지, 최근 기관 표창을 받았다고 밝혔다.

광주우체국은 광주·전남 우체국 중 유일하게 36억원의 흑자를 기록했으며 경영수지를 평가하기 시작한 지난 2005년 이후 3년 연속 흑자 달성 기록을 세웠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LGT, 휴대폰 보험 개편 출시

LGT텔레콤은 납입 보험료에 따라 휴대폰과 분실, 파손 시 보상 한도를 달리한 '기본 좋은 휴대폰 보험'을 새로 선보였다.

기본 보험은 월 보험료 2천980원을 내면 휴대폰 분실, 도난, 완전파손 시 최대 37만5천원까지 보상받을 수 있었지만 개편된 보험은 월 보험료를 2천900원, 3천200원, 3천500원으로 차등화하고 보상한도를 각각 32만원, 40만원, 48만원으로 정했다.

가입 문의는 보험센터(1544-1110)로 하면 된다.

지상파 DMB 1,000만 시대

지상파DMB(이동멀티미디어방송) 이용자 1천만 시대가 열린다.

23일 방송통신위원회와 지상파 DMB특별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2월 말 기준으로 DMB 이용자는 약 1천 100만2천 명으로 지상파DMB는 969만2천 명, 위성DMB 가입자는 131만 명으로 집계됐다.

2월 한 달 동안 지상파DMB 단말기는 52만9천 대(잠정치)가 판매됐으며 같은 기간 위성DMB의 신규 가입자는 3만6천 명에 달했다.

이로써 지난해 12월부터 올 2월까지 지상파DMB 단말기의 월 판매대수가 적게는 44만 대에서 많게는 52만9천 대 수준인 점을 감안하면 늦어도 다음달 초에는 1천만 명을 넘을 것이 확실시된다.

휴대폰 언제 사야 좋을까

보조금 규제 27일 폐지

돈으로 행복 해지려면?

보조금 역대 최고... "지금 당장 사라"

"보조금 폐지 D-4, 지금 안하면 후회합니다." 23일 오후 광주시 충장로에는 휴대폰 판매점마다 '공짜폰'이라는 팻말을 내걸고 호객행위를 하느라 여념이 없다. 점원들은 "27일부터 보조금이 없어진다. 지금 사지 않으면 후회한다. 40만~50만원대 휴대폰이 공짜"라며 발길을 유혹한다. 광고 문구에는 '보조금 규제 폐지'가 '보조금 폐지'로 문갑한 채 소비자를 유혹하고 있다. 27일 휴대폰 보조금 규제 폐지를 앞두고 이동통신시장이 요동치고 있다. 이로 인해 새로 휴대폰을 구입하려는 이들은 적지않게 혼란스럽다. 지금 당장 사야 할지 아니면 27일 이후로 미뤄야 할지 고민이기 때문이다.



27일 휴대폰 보조금 규제 폐지를 앞두고 23일 오후 광주시 동구 충장로 휴대폰 판매점들이 '공짜폰'이라는 팻말을 앞세워 소비자들을 유혹하고 있다.

이통사들 경쟁 절정... 초특가전에 '공짜폰'

의무약정제 도입때 혜택여부 꼼꼼히 따져야

◇이동통신 환경 확 바뀐다=18개월 이상 가입자에 한해 2년 동안 한 차례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제한했던 휴대폰 보조금 규제가 27일부터 완전히 사라진다. 이렇게 되면 이동통신 사업자들은 전라에 따라 탄력적으로 보조금 정책을 펼칠 수 있다. 게다가 다음 달부터 이동통신사에 서비스 가입기간을 미리 약속하면 보조금을 더 받을 수 있는 '의무약정제'도 시행된다.

또 27일부터 잠깐 있으면 아무 휴대폰이나 사용 가능한 범용가입자식별장치(USIM)도 개방된다. 잠깐 바꾸면 번호는 그대로인 채 가족이나 친구간에도 휴대폰을 바꿔 쓸 수 있는 것이다. 다만 당분간은 동일 사업자에 가입한 3세대(3G) 이용자끼리만 가능하며 타 시간 휴대폰 바꿔쓰기는 올 하반기에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이 같은 보조금 규제 폐지와 USIM 개방을 계기로 소비자들은 단말기의 잦은 교체에 따른 과소비 비용을 줄이고 이통사들도 단말기 보조금 대신 요금 경쟁을 펼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지금 당장 사라" = 휴대폰을 신규로 구입하거나 교체하려면 보조금 규제 폐지 전인 지금 당장 구입하는 것이 가장 저렴할 것으로 보인다. 판매점들이 '보조금 규제 폐지'를 '마지막 보조금'이라 유혹하며 마케팅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충장로 K매장 관계자는 "사실 이통사들이 보조금 정책을 어떻게 취할지 알 수 없다"면서 "27일 이후 어떻게 되든 지금은 지금대로 팔아야 하지 않겠느냐"고 털어놨다. 추후에도 의무약정제 등 보조금이 어떻게든 명맥을 유지하겠지만 '지금보다는 덜 할 것'이라는 데에 의견이 지배적이다.

실제 보조금 지급도 크게 늘었다. 합법보조금과 판매장려금을 합친 보조금 규모는 통상 20만~30만원 수준인데 1월 중순 이후 가입자 유치 경쟁이 불붙으면서 최근 보조금 규모가 사상 최고 수준인 40만~45만원으로 뛰었다. 보조금 규제 폐지를 앞두고 규제가 느슨해져 불법보조금이 판치고 있기 때문이다. 업계에서는 "최고 45만원인 현행 보조금이 더 오르지 않는 것"이라고 내다봤다.

일각에서는 단말기에 따라 보조금이 양극화될 것으로 점치기도 한다. 보조금을 안줘도 잘 팔리는 단말기와 그렇지 않은 단말기 사이에 보조금 지급을 다르게 적용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즉 최신형 단말기의 경우 27일 이후에는 지금보다 보조금이 줄어들 가능성이 높아 지금 구입이 유리하고 구형 단말기는 시간을 좀 더 두고 기다리는 편이 좋다는 것이다.

◇의무약정제가 대체=27일 이후 보조금 규모에 영향을 미칠 제

도는 '의무약정제'다. 의무약정제는 소비자가 서비스 이용기간을 미리 약속하면 보조금을 더 많이 주는 제도다.

의무약정 도입 초기 이용자가 제공할 보조금 규모는 30만~40만원 선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앞으로 의무약정에 따른 보조금이 올라갈 가능성은 높다. 일부 업체는 최대 50만원 이상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통사 입장에서는 약정기간을 늘릴수록 가입자를 자사 고객으로 오래 묶어 둘 수 있다는 매

력이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의무약정제가 무조건 가입자에게 유리한 것만은 아니다. 중도 해지나 휴대폰 분실 등 약정기간을 채우지 않고 피치못할 사정으로 서비스를 끊고 바꾸게 되면 남은 기간에 따라 상당한 수준의 위약금을 물어야 하기 때문이다.

업계 관계자는 "일반적인 보조금과 약정제에 따른 보조금 혜택 규모를 꼼꼼히 따져 휴대폰을 구매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돈과 행복' 사이언스 발표

"돈으로도 행복을 얼마든지 살 수 있다. 단 그리고 싶으면 그 돈을 남을 위해 써야 한다." 캐나다 브리티시컬럼비아대와 하버드경영대학원 연구진이 21일 과학 저널 '사이언스(Science)'에 발표한 논문에서 밝힌 돈으로 행복해지는 방법이다.

연구진은 실험결과 "다른 사람의 선물을 사거나 자선단체에 기부하는 등 '친 사회적'으로 돈을 쓴 사람들이 자신에게 돈을 쓴 사람보다 훨씬 더 행복감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연구책임자인 브리티시컬럼비아대 엘리자베스 던(심리학) 교수는 "이 실험을 통해 돈을 어떻게 쓰느냐가 돈을 얼마나 많이 버느냐 하는 것만큼 (행복해지는 데) 중요하다는 우리 이론을 시험해보고자 했다"고 말했다.

이들은 미국인 630명을 표본 추출한 다음 이들의 연간 수입과 월별 지출내용, 행복감 등을 조사했다. 월별 지출 내용에는 각종 청구서와 다른 사람을 위한 선물과 자신을 위한 선

돈으로 행복 해지려면?

물 비용, 자선단체 기부 등이 포함됐다. 던 교수는 "조사결과 사람들은 얼마나 많이 버느냐에 관계없이 다른 사람을 위해 돈을 쓴 사람이 자신을 위해 돈을 더 많이 쓴 사람보다 더 큰 행복감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연구진은 또 미국 보스턴에 있는 한 회사 직원들을 대상으로 3천~8천 달러의 성과보너스를 받고 전과 받은 후의 행복감을 조사한 결과 행복감이 영향을 미치는 것은 보너스를 얼마를 받았느냐가 아니라 그 돈을 어떻게 쓰았느냐 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보너스로 받은 돈 가운데 더 많은 액수를 다른 사람을 위한 선물이거나 자선단체 기부 등에 쓴 직원들이 자신에 필요한 곳에 돈을 쓴 직원들보다 행복감을 더 많이 느꼈다는 것이다.

또 참가자들에게 5~20달러를 준 다음 절반에게는 그 돈을 자신을 위해 쓰게 하고 나머지 절반에게는 다른 사람을 위해 쓰도록 하는 실험에서도 다른 사람에게 돈을 쓴 사람들의 행복감이 자신을 위해 쓴 사람들보다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연필뉴스

e스포츠 광주·전남지부 6월 창립

광주정보문화진흥원 - e스포츠협 MOU

오는 6월 한국e스포츠협회 광주·전남지부 설립을 시작으로 e스포츠의 전국화가 추진된다.

23일 광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원장 김영주)과 한국e스포츠협회에 따르면 양 기관은 최근 e스포츠 공동사업 추진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 오는 6월14일 전국 아마추어 e스포츠대회 광주대회 전 기간 광주·전남지부 설립 현판식을 갖기로 합의했다.

한국e스포츠협회는 광주에 설립된 첫 시도지부를 시작으로 이를 전국적으로 확산시켜 나갈 방침이다. 이를 계기로 지역대회와 전국대회의 유기적 연계를 강화하고 지방 e스포츠 조직의 활동을 지원할 계획이다. 시도지부는 해당 지역에서 개최되는 준프로게이머 선발 및 지역 e스포츠 행사를 주최, 주관할 권리를 갖게 된다.

양 기관은 또 광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 산하 한국게임사관학교를 통해 e스포츠 종사자들의 직업 전환교육 개발을 추진할 방침이다. 진흥원은 e스포츠 종사자의 게임기업 취업을 지원하는 한편, 게임중독 상담치료사, 게임 스토리텔러, 게임마케터 등 양성 프로그램을 개발할 계획이다. 한국e스포츠협회 제훈호 이사는 "이번 제휴를 협회의 주요 정책과제인 e스포츠의 정식체육종목화 인증 요건 충족을 위한 첫 단추를 꿰었다"며 "전국 시도지부 설립에 박차를 가하는 한편 e스포츠 중흥을 위해 자체와의 연계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박정욱기자 jwpark@



e스포츠 종사자들의 직업 전환교육 개발을 추진할 방침이다. 진흥원은 e스포츠 종사자의 게임기업 취업을 지원하는 한편, 게임중독 상담치료사, 게임 스토리텔러, 게임마케터 등 양성 프로그램을 개발할 계획이다.

Real estate advertisement for '대인동삼일부동산' (Daedong Samil Real Estate) featuring various properties for sale and rental.

Real estate advertisement for '첨단월계공인중개사' (Advanced Moongye Real Estate) with a focus on '금매매' (gold sale) and various commercial properties.

Real estate advertisement for '고흥신도시공인중개사' (Gohung New City Real Estate) highlighting '점' (point) and '별장·농장등' (villa/farmhouse) properties.

Real estate advertisement for '금보부동산건설링' (Geombo Real Estate) featuring '토지매매' (land sale) and '건물매매' (building sale).

Real estate advertisement for '법원경매 전문' (Court Auction Specialist) and '지지경매컨설팅(주)' (Jiji Auction Consulting Co., Ltd.) with detailed tables of auction listings.

Real estate advertisement for '법원경매 전문회사' (Court Auction Specialist Company) with detailed tables of auction listings and contact information.